

HEADLINE NEWS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물부족으로 「가뭄경보」 발령 및 대책 추진 (뉴욕)

미국 뉴욕시는 수개월에 걸친 가뭄으로 인해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지난 1월 「가뭄주의보(Drought Watch)」에서 「가뭄경보(Drought Warning)」 단계로 전환, 현재 '가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상수원의 담수량이 적정 수준보다 무려 40% 정도 부족해졌기 때문에 상수공급의 작동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지 제23호 「'수돗물 10% 절약 운동' 전개 (시애틀)」, 제36호 「물절약 위해 '定量用水 관리제도' 실시 (북경)」 기사 참조)

시환경보호국은 현재의 상수공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공급과정 및 물부족 현황 등을 소개하는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물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올 봄에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ww.nyc.gov/html/dep/html/news/innews.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市홈페이지 설문조사 통해 도시발전방향 수립 추진 (미네아폴리스)
- ②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 수립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 (샌프란시스코)
- ③ 국제비즈니스기능 강화 위해 도시개발 기본방침 개정 (동경)

도시환경

- ④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탁월한 전기자동차 시범운영해 전기자동차 이용 유도 (뉴욕)

도시교통

- ⑤ 항공사진 이용해 교통계획 수립 (런던)
- ⑥ 택시업체, 버스업 병행 및 버스-택시간 연계운행 추진 (교토)
- ⑦ 「차량유도시스템」으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경)
- ⑧ 심야버스 서비스수준 제고 ·노선 증설로 승객 증가 (런던)

사회복지

- ⑨ 장애인 및 노약자용 지하철 안내도 제작 (런던)
- ⑩ 도심재개발 빌딩에 대형보육원 유치해 건물 관촉 (동경)

행재정

- ⑪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담배자판기 설치 (베를린)
- ⑫ 시민편의 위해 모든 非인금융 공공서비스 신청 전화 번호를 「311」로 통합 (뉴욕)

① 市홈페이지 설문조사 통해 도시발전방향 수립 추진 (미네아폴리스)

미국 미네아폴리스市는 도시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市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市는 현재 도시의 개발방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市長과 市의회가 앞으로 미네아폴리스의 경제 및 지역개발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지역사회개발 및 도시계획 프로젝트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지역사회 지도자·기업가·일반시민용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www.ci.minneapolis.mn.us/news/news-release/20020214)

②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 수립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인구증가로 인해 악화되어 가는 주거환경을 살리기 위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Better Neighborhood 2002)」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市는 살기 좋은 동네로, ①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상업시설, ②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③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④ 선택의 여지가 많은 다양한 주거양식, ⑤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⑥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⑦ 동네만의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 ⑧ 도시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동네 등 8가지 요소를 갖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市는 인터넷을 통해 이들 8가지 지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市는 날로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 8가지 요소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거, 근린상업, 오픈스페이스 및 대중교통을 포함시키는 혼합적인 토지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택개발은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市도시계획국은 2000년 5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착수, 수차례의 주민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왔다. 市는 2002년 초까지 계획시안을 작성한 후 재차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www.ci.sf.ca.us/planning/neighborhoodplans/program/index.htm)

3] 국제비즈니스기능 강화 위해 도시개발 기본방침 개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2월 15일 동경역 주변지역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 강화와 아키하바라(秋葉原) 지구에서의 IT관련산업 거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제도 운용의 기본방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키하바라를 ‘업무상업중점지구’로 새로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기업지원시설이나 연구개발시설 등 都가 유치를 추진하는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할증분의 상한을 3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지구에서는 복합형 개발지구 내에 국제교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都가 유치하려는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정비한 경우에도 용적률 할증을 인정해주는 특례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개별 개발부지 내에 유치대상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할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적률 보너스를 활용해 동경역 주변지역에 오피스빌딩을 집약시키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는 호텔이나 미술관 등의 대형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日本經濟新聞, 2. 16)

4]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탁월한 전기자동차 시범운영해 전기자동차 이용 유도 (뉴욕)

미국 뉴욕市는 오염물질 무배출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도입, 市 전역에 걸쳐 시범운영하고 있다. 市환경보호국은 전기자동차가 일산화탄소 및 스모그 원인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뉴욕市에 적합한 교통수단인 것으로 보고, 최근 전기자동차 20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市환경보호국은 현재 대체연료 자동차의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37대의 市소유 전기자동차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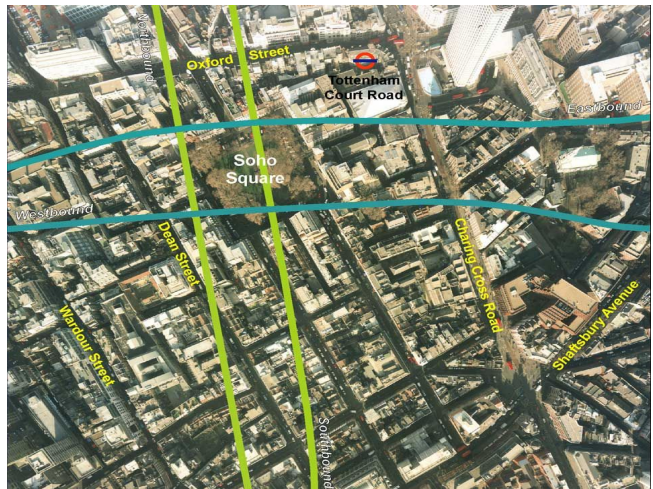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및 도로변 소음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5만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뉴욕市의 보유대수가 미국 도시 중에서는 3번째로 많다.

(www.nyc.gov/html/dep/html/news/ev.html)

5] 항공사진 이용해 교통계획 수립 (런던)

영국 런던시는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적인 도면작업 대신 항공사진을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 노선대안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환경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동서 및 남북 크로스라인 계획(사진 참조)도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진의 단가가 너무 높아 이의 유용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가장 최신의 정보를 3차원 입체 Base Map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항공사진 이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www.thetube.com)



6] 택시업체, 버스업 병행 및 버스-택시간 연계운행 추진 (교토)

일본 교토(京都)시에 있는 택시사업체 에무케이社は 개정 도로운송법에서 환승버스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교토시내를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 사업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 버스사업 허가 신청서를 최근 관할운수당국에 제출했다. 에무케이社は 올 9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버스이용요금은 시営버스보다 20엔 싼 200엔으로 할 예정이다. 시내 순환노선에 버스 20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연간 이용객을 약 53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무케이社は 버스노선과 연동해 10곳의 정류장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합승택시 사업허가도 신청했다. 사업허가가 나면, 월 3,000엔의 버스정기권 이용자에게는 택시이용요금을 50%, 월 6,000엔의 정기권 이용자에게는 20%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5년을 목표로 버스와 노선택시를 시내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kyoto-ne.co.jp/kp/topics/2001feb/01/W20020201MWA2K100000105.html)

7 「차량유도시스템」으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차량유도시스템(Car Navigation)」을 활용한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都는 현재 혼다(Honda), 도요타(Toyota) 등 6개 社와 함께 시부야區 변화가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都는 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요구에 맞는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노상주차와 주차장 대기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감소시키며,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가와 연계함으로써 거리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의 운용체계를 살펴보면, 전용 「차량유도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지역 내에 진입하면 무선인터넷을 통해 차량 정보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발신된다. 시스템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주차장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이의 경로를 「차량유도시스템」에 표시한다. 이용자는 주차요금, 목적지까지의 거리, 이용상가 할인제도, 영업시간 등을 고려해 3가지 조건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都와 사업참여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앙케트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시스템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都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대도시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객으로 붐비는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있는 요코하마市 등과 교섭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에는 혼다와 도요타 외에도 「차량유도시스템」을 담당하는 덴소(Denso), 정보관리서버를 담당하는 NEC, 주차장의 만차(滿車) 또는 공차(空車)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체 2개 社가 참여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2. 14)

8 심야버스 서비스수준 제고·노선 증설로 승객 증가 (런던)

영국 런던광역市에서는 심야버스의 서비스수준이 향상된 결과, 지난해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 약 300만명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市는 앞으로도 통근 근로자, 영화관람객 및 심야관광객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심야버스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보다 향상된 심야버스 서비스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에 비해 운행횟수가 18% 늘어나, 심야버스가 자주 운행되고 있다. 심야에도 대부분 주간(晝間)노선을 그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전담팀이 주요역에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수준도 감독하고 있다. 버스이용요금은 현금 승차시 주간(晝間)요금과 동일하고, ‘할인권’으로 승차할 경우 성인은 65펜스(약 130원), 어린이는 35펜스(약 70원) 할인된다. 1일 승차권과 버스 패스로도 새벽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심야버스의 2/3가 바닥이 낮은 저상(低床·Low Floor) 버스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보다 용이하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런던외곽노선을 비롯해 16개 노선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5개 노선이 증설될 예정이며, 버스 승차장의 조명시설 설치도 추진중에 있다.

(www.london.gov.uk/news/2002/081-1302.htm)

9 장애인 및 노약자용 지하철 안내도 제작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은 최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새로운 안내도를 만들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안내도는 82개 지하철역의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위치, 54개 역의 승강장 높이 및 지하철과의 거리, 그리고 도보통행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안내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아울러, 런던 지하철 당국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2002년 말까지 5개 역을 수리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향후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는 다양한 계획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METRO, 2. 14)

도심재개발 빌딩에 대형보육원 유치해 건물 판촉 (동경)

東京都 등 일본의 대도시에 200~400㎡의 대형보육원을 설치한 오피스 빌딩이나 맨션이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대형빌딩 건설·운영업체들이 도심의 재개발건물에 보육원을 싼 임대료로 적극 유치, 아이가 있는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지가하락에 따른 인구의 도심회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심시가지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건축주 및 추진업체가 건물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형보육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도시내 보육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빌딩내 대형보육원 설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모리빌딩건설’은 東京都 룩폰기힐즈의 오피스빌딩에 대형보육원과 소아과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오피스빌딩의 업무인구가 약 13,000~15,000명에 달해 아동위탁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영화관람 때와 같은 일시적인 아동위탁 수요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東急커뮤니티’는 올 여름 오픈하는 JR메구로驛 앞의 오피스빌딩에 보육서비스업체를 유치했으며, ‘일본담배산업’이 시부야에 건설중인 대형건물에도 보육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의 오피스빌딩내 보육원시설들은 都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육료를 월 5만~8만엔 정도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추가 보육료를 지불하면 연장보육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1일 운영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2. 2)

(독)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담배자판기 설치 (베를린)

독일 연방보건부는 향후 청소년들이 담배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전면 규제키로 했다. 연방보건부는 앞으로 유로체크 신용카드(EC-Karte)로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카드에 카드소지자의 연령을 저장함으로써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담배자판기 이용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그 동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인구를 증대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올해 9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명문화하기로 하고, 담배자판기 제조업체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담배자판기가 연령 외의 다른 정보는 인식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Frankfurt Rundschau, 2. 6)

(미) 시민편의 위해 모든 비긴급용 공공서비스 신청 전화번호를 「311」로 통합 (뉴욕)

미국 뉴욕시는 최근 모든 종류의 비(非)긴급용 공공서비스(Non-emergency Services)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 및 신청 전화번호를 「311」로 통합키로 했다. 시는 현재 공공안전문제 14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공동체문제 11개, 비즈니스·폐기물관리문제 7개, 보건복지문제 11개 등 총 40여 개의 공공서비스제공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해당 분야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기가 어렵고, 통화가 된다고 해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 그 동안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시는 우선, 향후 9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311」전화시스템을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311」전화번호를 통해 도로보수, 불법주차견인, 세금 및 여행정보 등 모든 비(非)긴급용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11」전화시스템을 통해 시는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책임감과 민원처리율을 측정하며,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11」전화시스템은 1996년 비상용 전화인 「911」에 대응해 비(非)긴급용 전화로 각 전화국에 설치되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시카고, 볼티모어, 달라스 등 20여 개 도시들이 이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고 있다. (www.nyc.gov/html/om/html/2002a/pr024-02.html)